

2022년 10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학습자 말뭉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고마워, 한글', 2022 한글주간 열린다 11쪽

국어로 함께하기_한글날 특별호
한글날맞이 우리 말글 과거 시험 17쪽

국어로 함께하기_한글날 특별호
한글 기계화의 시작을 알린 공병우 19쪽

국어로 함께하기_한글날 특별호
아름다운 우리말로 상표 등록하고 상도 받자 21쪽

국어로 함께하기_한글날 특별호
한글의 변신 25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55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가치와 값어치, 같은 듯 다른 쓰임새 29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외래어는 우리말로 다듬어 써요! 33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현진건 소설 둘러보기 35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2022년 제3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아카데미 참가 신청 안내 37쪽

국어로 바라보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나 당연한 문화는 없다 39쪽

국어 바라보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 말글에 대한 자긍심 45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59쪽



학습자 말뭉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세대학교 교수 한송화

■ 학습자 말뭉치란 무엇일까?

학습자 말뭉치란 학습자가 제2언어 혹은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생산한 글이나 발화를 모아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가공해 놓은 대규모의 언어 자료이다. 학습자의 언어 발달 패턴이나 원어민과는 다른 언어적 특질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보통은 학습자의 모어나 언어 수준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구축, 가공하게 된다.

학습자 말뭉치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소규모로 수집한 학습자 자료에 의지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을 연구하고 언어 발달을 추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뭉치를 구축함으로써 대규모의 자료로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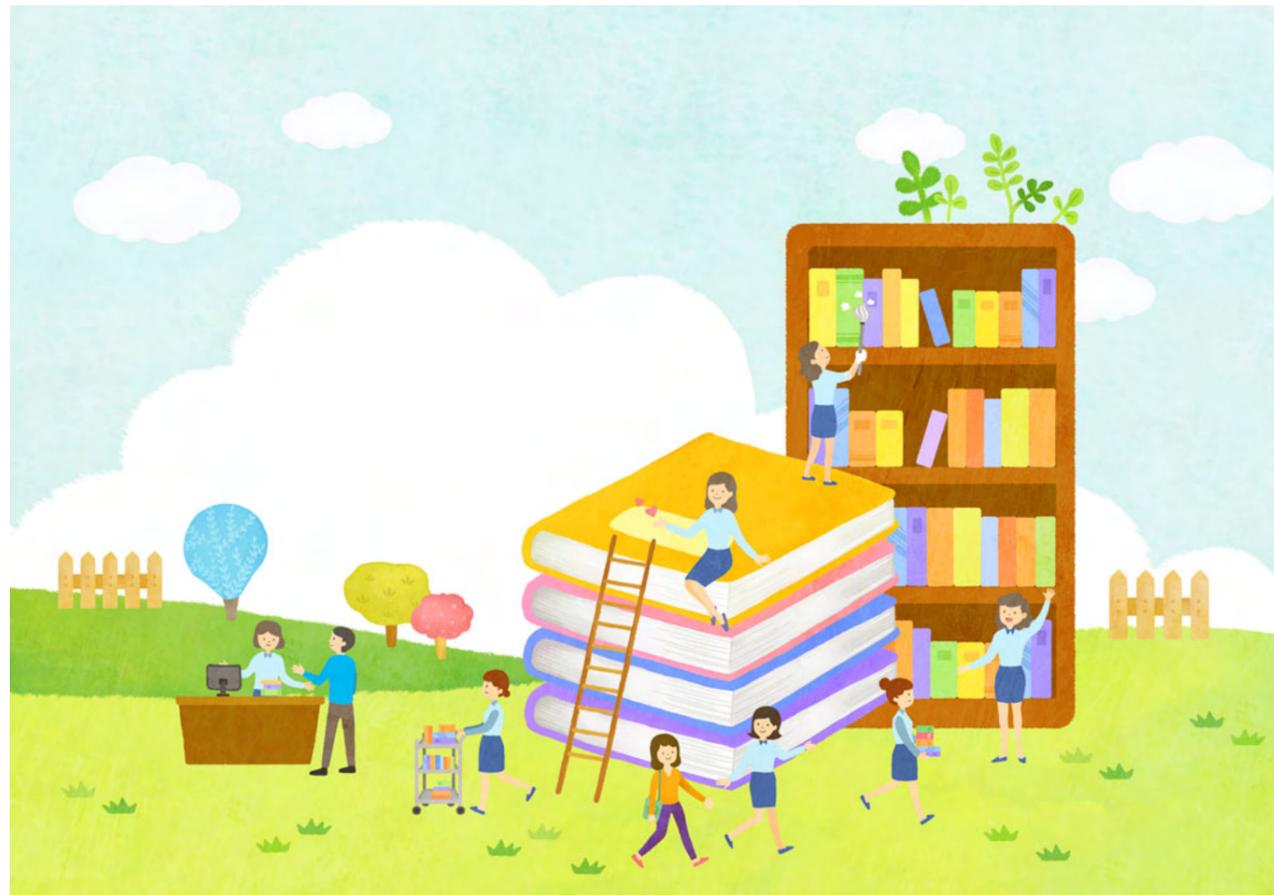
학습자의 언어 발달 연구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산출한 데이터만이 아니라 참조가 될 수 있는 원어민 화자의 말뭉치,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입력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교재 말뭉치, 교실 말뭉치 등도 필요하며, 이러한 참조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를 비교 대조하여 연구함으로써 학습자 언어의 특질을 밝힐 수 있게 된다.



■ 왜 학습자 말뭉치가 필요할까?

학습자가 제2언어나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산출하는 언어 자료는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연구의 자원이 되며,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의 언어 오류(error)는 제2언어 교육 자료 개발과 연구를 위한 자원이 된다.

제2언어 학습자의 산출 자료는, 인간의 언어 습득과 관련한 오랜 논쟁인 선험론과 경험론과 관련한 언어 습득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자료 원천이 될 수 있다. 선험론이란 인간은 본래부터 언어 능력을 타고 났으며,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입장이며, 경험론은 인간이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언어를 습득할 때도 많은 경험적 자료의 모방과 반복, 연상 작용, 유추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일반화는 언어 연구의 오랜 과제이지만,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언어(모어) 습득과 관련한 자료는 대규모의 자료 구축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 제2언어 혹은 외국어 학습에서 산출되는 언어 자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변인별로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학습자 말뭉치에 드러나는 제2언어나 외국어 습득 과정은 언어 습득 과정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모어 습득과 제2언어 혹은 외국어 습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인간의 언어 습득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습자 말뭉치는 언어교육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조기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유학 경험의 효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원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학습자 말뭉치는 제2언어 학습자나 외국어 학습자인 비원어민 화자와 원어민 화자 간의 언어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원어민 화자스러운 언어적 특질을 밝히고 이를 학습자가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제2언어나 외국어 학습은 이미 하나의 언어를 습득한 화자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모어와 목표어가 되는 제2언어 혹은 외국어 간의 언어적 간섭 현상 등,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언어 학습 이동이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를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언어 교수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되어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수 방법 개발이나 교육 자료 개발, 학습자 오류 사전 등 언어 교육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또 숙달도에 따른 학습자들의 언어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숙달도 수준에서의 언어적 특질을 발견하고 이를 자동 평가(자동화된 컴퓨터 기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국내외의 학습자 말뭉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활용은 제2언어나 외국어 교육 분야의 최근 경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민간 기관, 대학, 개인 연구자에 의해 약 183종의 학습자 말뭉치가 구축되어 왔으며, 영어 교육 분야만 해도 1,000만 어절 이상의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CLC(Cambridge Learners Corpus)는 약 5천 만 어절, HKUST(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의 Learners Corpus는 약 2천 5백만 어절, The Longman Learners' Corpus는 1천만 어절 규모에 이르며, 모어 화자의 자료를 포함한 The Uppsala WordReference Corpus는 약 1억 3천만 어절에 달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2002년에는 국립국어원 주도로 50만 어절 규모의 학습자 말뭉치(연세 학습자 오류 말뭉치, YLEC) 구축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부터 2005년에는 50만 어절의 고려대학교 말뭉치, 2010년에는 약 28만 어절의 한국어학당 말뭉치가 구축되어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립국어원 주도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가 구축되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구축된 말뭉치의 규모는 문어와 구어를 합해 총 520만 어절에 이른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추후 2025년까지 1,000만 어절을 목표로 현재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규모>

구축 규모 (2021. 4. 6.) *원어민, 비원어민(학습자), 기타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기준

	합계		문어		구어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어절 수	표본 수
원시 말뭉치	5,220,429	34,342	3,697,952	31,201	1,522,477	3,141
형태 주석 말뭉치	3,704,586	25,092	2,602,914	22,641	1,101,672	2,451
오류 주석 말뭉치	1,148,066	6,742	605,424	5,526	542,642	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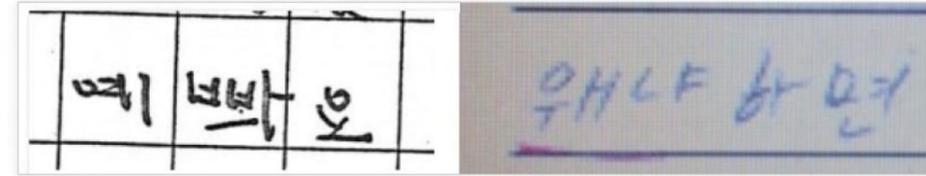
▲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https://kcorpus.korean.go.kr/service/goSummaryStatus.do>)

■ 학습자 말뭉치는 어떻게 구축하는가?

학습자 말뭉치는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가공 단계를 거칠 수 있다. 가공 정도에 따라 원시 말뭉치, 주석 말뭉치로 나눌 수 있는데, 원시 말뭉치란 학습자의 글이나 발화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그야말로 전사만 해 놓은 상태의 말뭉치를 말한다. 그리고 주석 말뭉치란 원시 말뭉치에 여러 주석을 해 놓은 말뭉치를 말하는데, 주석의 종류는 언어적 특질에 따라 품사와 형태소를 주석한 형태 주석 말뭉치와 학습자의 오류를 주석한 오류 주석 말뭉치가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주석 말뭉치가 될 것이다.

학습자 말뭉치의 가공 과정은 일반 원어민 말뭉치의 가공 과정보다 몇 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자료는 원어민에게는 없는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나 문법적 오류뿐 아니라 철자적 오류나 발음의 오류는 학습자의 글이나 발화의 전사를 어렵게 한다. 즉 원어민 화자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철자적 오류를 보이기도 하고, 학습자의 모어로 인한 발음의 오류나 발음의 불명확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표기 예시>



특히 발음의 불명확성이나 학습자 모어로 인한 발음의 오류는 전사자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하여 다르게 전사할 수 있어 전문적인 전사자가 일관되게 전사하지 않으면 말뭉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구어 전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문적인 구어 전사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사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학습자말뭉치나눔터에서 원시말뭉치를 포함하여 형태 주석말뭉치, 오류주석말뭉치를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결과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https://kcorpus.korean.go.kr/service/goSummaryStatus.do>) 국립국어원의 한국어학습자말뭉치나눔터의 통계 자료나 검색창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적 특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동사나 명사는 ‘있다, 하다, 저, 사람’이고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예시를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 수 있다.

<한국어학습자말뭉치에서의 고빈도 단어>

형태소	표지	총 표본수	급수별								총계	자유 유형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이상	정보 없음		문어	구어
있	W(동사)	21,166	11,320	14,423	16,322	17,020	17,846	13,851	1,334	-	92,533	76,117	16,416
하	W(동사)	19,078	7,798	11,234	13,697	13,987	11,057	9,448	830	-	68,270	54,654	13,616
저	NP(대명사)	12,019	20,984	11,402	5,961	4,487	2,896	1,972	99	-	48,147	33,903	14,244
사람	NNG(일반명사)	14,617	3,410	5,520	7,935	10,541	11,056	7,809	272	-	46,756	39,437	7,319

▲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한국어학습자말뭉치에서의 ‘사람’의 용례>

3325	영어	1급	철순은 싱가포르	사람이지만	한국 음악을 자주 들어요.
3326	타이어	1급	저는 한국	사람하고	한국 좋아요.
3327	타지크어	1급	태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3328	타이어	1급	태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을 좋아합니다.
3329	타이어	1급	다음 주제는	사람들이	한국과 태국에 사는 방식입니다.
3330	러시아어	1급	외국	사람이	한국말 모 알아듣고 짜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 학습자 말뭉치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외 학습자 말뭉치로서 약 5천 만 어절의 학습자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는 CLC(Cambridge Learners Corpus)는 전체 말뭉치 중 일부가 SketchEngine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품사 주석이 되어 있는 말뭉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의 영어 교재 개발에 말뭉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 상응하는 영어 학습자의 숙달도 평가 지침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는 말뭉치를 활용해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 따른 영어 프로파일 단어 목록(English Profile Wordlists)을 개발하여 공식 홈페이지(<https://www.englishprofile.org/>)에서 어휘와 문법 목록을 검색하여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습자 오류를 기반으로 프랑스어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도구 개발을 위해 구축된 French Interlanguage Database는 프랑스어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도구 개발에의 활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적합한 자동교정기 설계 연구 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또한 학습자의 중간 언어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글이나 발화에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적 특징, 학습자의 모어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특정한 방해를 일으키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교수 학습에 적용하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 채점, 숙달도 수준이나 모어의 자동 판별 등 한국어 교육에서의 평가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오류 감지와 자동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자 맞춤형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한국어 회화 연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습자 말뭉치는 언어교육학적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갈 것이며, 이는 한류의 붐과 함께 한국어교육의 지평이 넓혀지고 있는 때에 민간 차원에서의 상업적 활용으로도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마워, 한글’, 2022 한글주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2022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쉽고 편리한 문자 한글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되새기고자 ‘고마워, 한글’을 주제로 정하고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 한글날 기념 공연, 전시, 체험 등 풍성한 행사 마련

먼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날 전야제 행사를 비롯해 한글날 특별공연,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한글날 전야제 행사는 10월 8일(토) 오후 5시, 국립한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서울오케스트라와 서울코다이싱어즈가 한글날을 기념하여 기억부터 히읃까지의 한글 자음 14개가 제목 첫 글자에 초성으로 쓰인 가곡들*을 엮어 구성한 〈달소리로 노래하다〉를 공연하고, 이어서 세종문화상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한글날인 10월 9일(일)에는 ‘노랫말이 아름다운 가요’, ‘어린이 합창단의 한글 노래’ 등 특별공연, ‘근대한글연구소 기획전’, ‘한글 손편지 및 한글 사진 공모전’ 등 전시행사, ‘한글 쓰기 장원급제’, ‘한글 달고나 뽑기’ 등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 ㄱ: 고향의 봄, ㄴ: 님이 오시는지, ㄷ: 도라지 꽃 등

국립국어원은 한글주간을 계기로 10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국내외 한국어 학자, 교원, 언어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망을 형성하는 ‘2022 세계 한국어 한마당 학술대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세상을 잇는 한국어, 미래를 이끄는 한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어학 관련 14개 학술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10월 6일(목)부터 10일(월)까지 국립한글박물관 별관에서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 한글창의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한글 글꼴 등을 전시하는 ‘한글 · 한국어 산업전’을 연다.

세종학당재단은 10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67개국 151개소 세종학당에서 선발된 우수학습자 21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문화 연수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 쓰기 대회, 한글주간 전야제 행사 등에 참여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소통하면서 한국어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문화예술단체 12곳에서도 각종 한글주간 행사를 마련한다. 여주 세종문화재단의 뮤지컬 ‘세종, 1446’, 아트브릿지의 ‘하늘연달, 아흐레-여민한글’, 극단도깨비의 ‘한글이 내려온다’ 등의 공연을 비롯해 마포문화재단의 ‘한글노랫말 가사 공모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국어 단체들의 학술대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글주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한글날.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세계 한국어 한마당 학술대회’

■ 제41회 세종문화상, 한글 발전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 수상자 10월 초에 발표

아울러 문체부는 한글날을 기념해 세종문화상과 한글 발전 유공 시상식도 개최한다.

제41회 세종문화상 시상식은 10월 8일(토) 오후 6시 국립한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자 1982년에 제정된 표창으로서,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10월 9일(일), 제576돌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한글·한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헌신한 분들께 ‘한글 발전 유공’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 세종문화상 수상자와 한글 발전 유공자는 10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배경: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한글날 전후 1주일을 ‘한글주간’으로 정하고 한글 관련 문화예술행사 개최

주제: 고마워, 한글 * 한글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되돌아보고 한글에 고마움을 표현하자는 의미

기간/장소: 2022. 10. 4.(화)~10. 10.(월)/ 국립한글박물관 및 전국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사)국어문화원연합회

공식누리집: www.한글날.com

주요 행사 일정

구분	프로그램	일정	장소
공연행사	한국 예술가곡제 <당소리를 노래하다>	10. 8.(토)	한글박물관 야외무대
	노랫말이 아름다운 가요	10. 9.(일)	
	어린이 합창단 한글 노래 공연		
	한글 톡톡, 타악기 팡팡	10. 10.(월)	
	아카펠라로 부르는 한글 노래	10. 10.(월)	
	소리 뮤지컬 <이도> 공연 등	10. 6.(목)~10. 9.(일)	서울남산국악당
	하늘연달, 아흐레-여민한글	10. 9.(일)	
	교과서를 뒤흔쳐나온 단편소설 <마당걸 청사초롱>	10. 7.(금)~10. 8.(토)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뮤지컬 <세종, 1446> 한글날 기념공연	10. 7.(금)~10. 8.(토)	여주 세종 국악당
	<한글이 내려온다>: 공연 '노래하는 한글' 등	10. 9.(일)	부산 시민공원
연극 <소년 세종 - 가나다라의 비밀>	10. 9.(일)~10. 10.(월)	미마지 아트센터	
전시행사	한글·한국어 산업전 전시	10. 6.(목)~10. 10.(월)	한글박물관 1층, 별관
	한글 손편지 공모전 전시	10. 1.(토)~10. 31.(월)	이촌역 나들길
	제2회 내가 만난 한글 사진 공모전 전시		
	기획전시 근대한글연구소	10. 7.(금)~'23. 1. 29.(일)	한글박물관 3층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전시	10. 7.(금)	세종대왕기념관
체험행사	중고 책 장터 운영	10. 8.(토)~10. 9.(일)	한글박물관 잔디광장 및 야외 체험 부스
	외국인과 어린이 한글 쓰기 장원급제(1일 2회)	10. 8.(토)~10. 10.(월)	
	한글로 즐기는 추억놀이, 한글 보드게임 등		
학술행사	한글 한류 시대 한글 산업화 전략 모색 학술대회	10. 5.(수)	세종컨벤션센터
	제14회 집현전 학술대회	10. 6.(목)	한글박물관 강당
	576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 학술대회	10. 7.(금)	한글회관 강당
	2022 세계 한국어 한마당 국제학술대회	10. 6.(목)~10. 7.(금)	한국프레스센터
기타	2022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10. 5.(수)~10. 11.(화)	국립한글박물관 외
	2022 제8회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10. 8.(토)	KBS1 방영 (촬영: 9. 28.~29.)
	훈민정음 창(발랄) 경진대회 음원발매	10. 9.(일)	마포문화재단 누리집



우리 말글 과거 시험 국립국어원 우리 말글 과거 시험 국립국어원

2022년도 우리 말글 과거 시험
맞춤법 영역

1.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을 고르세요.

- ① 몰아붙이다
- ② 허구한 날
- ③ 철썩같이
- ④ 짓밟다
- ⑤ 덩석

2022년도 우리 말글 과거 시험
다듬은 말 영역

2. 다음 중 다듬은 말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 ① 해시태그 -> 핵심어 표시
- ② 클린 뷰티 -> 친환경 화장품
- ③ 로 푸드 -> 길거리 음식
- ④ 커뮤니티 -> 공동체
- ⑤ 챌린지 -> 참여 잇기

우리 말글 과거 시험 국립국어원 우리 말글 과거 시험 국립국어원

2022년도 우리 말글 과거 시험
외래어 영역

3.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게 적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내가 보낸 메시지 못 봤니?
- ② 맘모스 화석이 우리 박물관의 자랑이야.
- ③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길 헤맬 걱정은 안 해도 돼.
- ④ 우리 슈퍼마켓에는 없는 게 없어.
- ⑤ 나는 생일 때 변신 로봇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어.

참여 방법

1. 「우리 말글 과거 시험」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골라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10. 4.~2022. 10. 17.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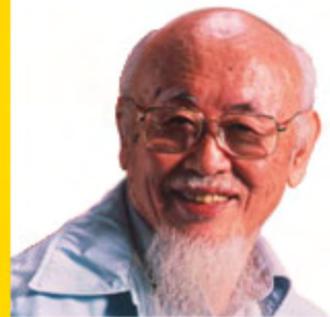
〈쉽표, 마침표〉 2022년 1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되신 100분께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드립니다.

한글 기계화의 시작을 알린 공병우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휴대 전화와 컴퓨터의 자판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 알아볼까요?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립국어원

공병우 선생은 광복 후 안과학 강의를 위해 과거 자신이 일본어로 썼던 "신소안과학"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서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자, 선생은 한글 타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사 초(草) 집었던 글을 깨끗이 베껴 씀.

국립국어원

당시 한글 4,5벌 식 타자기는 있었지만, 받침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자판을 눌러야 된다는 점에서 비능률적이라고 느낀 공병우는 타자기의 기본 구조를 익히고 연구하며 받침이 있는 한글에 적합한 '쌍초점 방식'을 개발하여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해 냈습니다.

*쌍초점: 활자가 찍히는 곳을 정확하게 고정되도록 파 놓은 홈이 두 개라는 뜻

국립국어원

세벌식 구조는 편리하고 과학적이었지만, 글꼴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표준 글자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세벌식 한글 글꼴을 개발하며 연구했습니다.

그가 착고한 5년 뒤인 2000년, 결국 공한체가 우수 한글 글꼴을 수상하며 심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립국어원

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타자기를 개발하고 남북한 통일 자판 문제를 연구하는 등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글과 한글 자판 개발을 향한 사랑을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을 편하게 입력해 전산화할 수 있는 것은 공병우 선생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자 타자기

세벌식 타자기

출처: 문화재청

아름다운 우리말로 상표 등록하고 상도 받자



올해로 7회를 맞은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행사는 우리말로 된 상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문가, 심사관, 국민 참여로 우수 상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상표는 상품의 표장으로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며 개인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표 형태는 문자, 도형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말로 된 상표는 보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상표는 상품과 어우러져 상품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우수성까지 알릴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올해는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9월에 전문가 평가 및 투표를 진행하였고 한글날에 맞춰 시상할 계획이다.

1.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행사란?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한다. 응모 대상은 현재 사용 중인 ‘우리말’로 된 등록상표이다. 다만 모방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사자 보유 상표, 다수인 보유 상표, 심판·소송 진행 중인 상표, 기존 유사 대회 수상 상표 등은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특허청에서 심사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표 대상이 된다.

수상작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 전문가 평가와 특허 고객 및 특허청 심사관 투표를 종합해 결정된다. 어문규범에 맞는지, 고유어를 사용했는지 등 언어적 기준뿐만 아니라 표현이 참신한지, 이해하기 쉬운지, 제품과 잘 어울리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특허 고객, 심사관 투표도 병행하면서 평가자의 범위를 넓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총 7건의 상표를 선정하며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을 시상한다. 아래는 역대 수상작 목록이다.

<역대 아름다운 상표 수상작 현황>

연도	표장	대표 지정 상품
2016		떡, 떡국, 떡볶이
2017		각종 상품 도소매업 중개업 판매 대행업
2018		가공된 과일, 건과자, 과일 음료
2019		유아용품 판매 대행업, 유아용품 판매 알선업, 유아의류 판매 대행업 등
2020		넙킨 용지, 두루마리 휴지, 물유지
2021		다시마, 모자반, 미역, 조미김, 갈태, 툇, 파래

2. 우리말 상표를 사용할 때 좋은 점

“상표 등록은 내 아이의 출생 신고다.” 백종원 대표가 언론 인터뷰 중 한 말이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타인은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상표는 ‘출처 표시’ 기능을 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또한 해외 진출 시에도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국내외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상표 출원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허청에서도 상표 출원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표는 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상표를 사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문자로만 이뤄진 상표(문자 상표)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복합 상표)가 가장 많이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출원했다고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식별력’의 유무이다. 즉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가’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상표가 소비자에게 인식되기 좋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말 상표는 상품과 함께하여 중의적·비유적 표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로부터 호기심과 재미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한글의 언어적 특성상 발음하기 쉽고, 뜻이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순우리말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대중에게 좋은 뜻의 순우리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말 상표는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이에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을 장려해 개인과 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같은 행사를 통해 우리말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조현선(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주무관)



국립국어원

이렇게 쓰여요!

공간 누리
한글로 공간을 문헌하여 주고 형태로 제작한 모습

공간누리

국립국어원

이렇게 생각해요!

“시각디자인의 관점에서 한글의 변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금호 산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저는 한글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 한글 글자꼴의 변화를 유희로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명명'이 '명명'이라는 애교스럽고 재미있게 발음되는 것은 한글이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리 간판에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

이렇게 생각해요!

“시각디자인의 관점에서 한글의 변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금호 산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런 과정에서 한글의 다양한 변형은 정말 반길 만한 일입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 격을 갖추는 것과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의도한 글자의 형태가 이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은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국립국어원

이렇게 생각해요!

“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글의 변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글이 규범적인 사용뿐 아니라 다양하게 변주되고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글이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들이 규범적 사용과 유희적 사용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한글의 변신

가치와 값어치, 같은 듯 다른 쓰임새

- 사물의 쓸모 혹은 쓸모 그 이상의 것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된 지 어느덧 57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훈민정음은 현존하는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창제 연월일과 창제한 인물이 밝혀진 문자이다. 창제일과 창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덕분이다. 유네스코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도 현존하는 유일한 문자 해설서로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가치’의 일반적 의미는 ‘쓸모’ 또는 ‘유용성’이다. 어떤 사물이 쓸모를 잃는 순간 가치도 소멸되고 어떤 대상의 유용성이 부정되는 순간 가치도 상실된다. 곧 가치의 기본 의미는 ‘사물이 어떤 목적에 쓰일 데가 있는 성질이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 어떤 용도로 쓰이지 않을지라도, 혹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지 않을지라도 존재 자체로 빛나고 귀한 것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가치의 또 다른 의미를 ‘어떤 사물을 참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생의 가치’는 ‘인생을 참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예술의 가치’는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참답고 의미 있는 성질’이라 할 수 있다.



‘값어치’도 쓸모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치와 유사하다. ‘아무 가치 없는 물건’은 ‘아무 값어치 없는 물건’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치를 값어치로 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㉗ 값어치가/가치가 꽤 나가는 귀금속
- ㉘ 사람 목숨의 값어치는/가치는 얼마인가?

값어치는 ‘값+-어치’의 조어 구성에서 보듯, ‘값’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그런 점에서 ‘천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귀금속’은 자연스럽지만 ‘천만 원의 가치가 나가는 귀금속’은 부자연스럽다. 마찬가지로 ‘사람 목숨의 값어치’를 ‘사람 목숨의 가치’로 바꾸어 말하기 어렵다. 사망 보험금의 액수로 ‘목숨의 값어치’를 가늠할 수는 있을지언정 ‘목숨의 가치’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값어치는 ‘어떤 대상에 상당한 값을 치를 만한 쓸모나 의의’로 정의할 수 있다.

- ㉗ 값어치가/가치가 꽤 나가는 귀금속
- ㉘ 사람 목숨의 값어치는/가치는 얼마인가?

㉘의 ‘기업의 가치’와 ㉗의 ‘기업의 값어치’는 서로 맞바꾸어 써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가치가 추상적 의미가 강하고, 값어치가 실제 값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본래의 문장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치는 값어치와 달리 복합어나 용어를 풍부하게 만들어 내는 성질이 있다. ‘가치관/가치 판단/가치 중립/경제 가치/교환 가치/부가 가치/사용 가치/잉여 가치/투자 가치/화폐 가치/희소가치’ 등이 그 예로, 한자어와 잘 어울리며 전문 용어로 쓰일 때가 많다.

화제를 바꾸어 다시 한번 한글의 가치를 이야기해 본다. 훈민정음은 무엇보다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즉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문자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제 훈민정음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글이 갖는 언어적이고 실천적인 가치가 웃음처럼 활짝 피어나는 날을 기대해 본다. 576돌 한글날을 기리며 우리가 읽고 쓰며 소통하는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 강은혜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문장 다듬기

외래어는 우리말로 다듬어 써요!



서비스 모니터링을 → 점검/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거나 점검한다는 뜻으로
'모니터링'이라는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 실태 조사, 정보 수집' 등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을 찾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리브펀드 → 사랑의 성금, 포인트 기부 → 적립금/적립 점수 등을
활성화하고 연간 3,000건 이상 봉사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행이나, 구호 등을 만들 때에도
'리브펀드'와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뜻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성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 국제 표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외래어인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는,
'국제 표준/세계적 표준'으로 적절히 다듬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문학작품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현진건 소설 둘러보기=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산호주가 미려 가쁜 몸을 흔들거리는데 그 질직한 땀이 구렁이나 무엇기터 구불명절자 원얼굴과 목을 뒤흔들어서 "에라 만수"를 찾고 있다.

<지새는 안개> 중

지역어	대응 표준어
질직하다	길쭉하다

살펴보기

'길쭉하다'는 '모양이나 형태가 좀 길다'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길쭉하다'가 있으며, 다른 방언형으로는 '길습하다, 길썩하다, 길다랗다, 길직하다, 질직하다'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옥연은 안차고 당알진 계집에있지만 열 네 살이란 나이가 있어 행령그렇게 빈집을 혼자 지키느라고 꽤 무서웠던 티에...

<정일의 회오리> 중

지역어	대응 표준어
당알지다	당차다

살펴보기

'당알지다'는 '나이, 처지나 걸모양에 비해 마음이나 행동이 아무지다'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당차다'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당알스럽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몸을 손바닥에 붙이고 있을 제 잔인하게도 순이는 명바닥에 태기를 쳤다.

<불> 중

지역어	대응 표준어
태기를 치다, 태기치다	메어치다

살펴보기

'메어치다'는 땅을 향해 강하게 내던지는 행동을 이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메어치다'가 있습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태치다' 등이 있습니다.

작가 정보

현진건(1900-1943)은 대구 출신 소설가입니다.

1920년 단편 소설 <희생화>로 문壇에 데뷔했습니다.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로 단편 소설을 개척하는 데 힘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빈처>, <운수 좋은 날>, <B 시강과 러브레터>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문학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2022년 제3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아카데미 참가 신청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자 말뭉치 사용자들의 효율적 활용을 돕고자 ‘2022년 제3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한국어교육 연구 분야에서 학습자 말뭉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 방법과 절차를 함께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주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주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연구팀

1.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16:00-18:00
2. 진행 방식: 대면, 비대면 Zoom 동시 진행
3. 신청: <https://naver.me/GvXDstil>

시간	프로그램 내용	발표
16:00-16:20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현황 소개	한송화(연구 책임자)
16:20-18:00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 주제 탐색과 적용 -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 연구의 실제	유소영(연세대학교)

4. 신청 기간: 10월 28일(금)까지(대면 선착순 20명, 비대면 100명)
5. 참가비: 무료
6. 아카데미 당일 준비물: 개인 노트북(※ 세부적인 준비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
7. 문의(전자우편 문의만 가능): klcorpus@naver.com





외국어 수업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다. 주로 초급반에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배운 말을 연습한다.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무엇을 하는지 물으면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한다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 또는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때 한국어 교재에는 꼭 ‘등산’이 빠지지 않는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산에 가는 그림을 보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고산지대에서 온 학생들은 ‘안 그래도 높은 데 사는데, 굳이 등산을?’이라는 얼굴을 하고, 험한 산이 많은 나라의 학생들은 ‘집 주위에 산이 얼마나 높으면?’이라며 가우뚱한다.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온 학생들은 ‘산에 가면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왜 산에 가느냐’고도 한다. 땅이 넓은 나라의 학생들은 ‘산에 가기까지 며칠 걸릴 텐데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등산이 언제부터 취미가 되었는지 상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교사들은 익숙하면 그저 한국 문화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어떤 외국어 학습에서도 문화를 빼고 언어만 배울 수는 없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은 늘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 언어 지식이 문화로 연결될 때 한국어 학습자의 눈빛은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겠다는 중학생들과 같이 초롱초롱하다. 그런데 문화 전문가가 아닌 한국어 선생님은 자신의 삶에서 익숙하게 보아 온 것을 한국 문화로 집중한다. 문화란 삶 속에서 후천적으로 익혀 온 것이고, 사람은 모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볼 일이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문화는 없다

이미향(영남대학교 글로벌교육학부 교수)

그러면 교재와 교실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흥미롭게 여긴 문화에 어떤 것이 있을까? 유학생들이 말하는 1위는 집들이이다. 교재에 집들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휴지나 세제를 사 가는 문화가 특별해서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다음은 돌잡이, 수능 선물 등이고, 뒤를 이어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신다는 음주 예절이다. 그런데 이 문화가 과연 유학생들이 경험하기 쉬운 일일까? 한국인의 새집에 초대받거나 돌잔치에 초대받을 유학생, 고3 수험생을 만날 외국인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는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내용으로 잘 선정된 것일까?

그 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로는 먹거리가 단골손님이다. 떡과 김치, 생일에 먹는 미역국이 한 차례씩 소개된다. 떡볶이,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과 더불어, 삼계탕과 팔빙수 등 계절 음식도 소개된다. 모두 외국인이 관심 두는 현대 문화이다. 그래도 반 세대 전에 나온 교재들과 비교해 보면 현대 문화가 많이 소개된 점에서 다르다. 한때 교재를 보면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떡국과 송편, 한복 등이 일색이었다. 그때에 비해 이제는 전통문화에만 집중하지 않지만, 교육 내용의 품질을 높이려면 근본적인 의문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는 곳곳이 문화의 산실이다. 문화의 주머니는 여기저기서 열릴 수 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지리, 예술, 문화유산 등 문화를 담은 보따리는 다양하다. 일상생활 하나만 더 들여다봐도 의식주, 여가와 경제생활, 공공 생활, 가정과 학교 및 직장 생활의 이모저모, 그리고 그 각각에 맞는 흥미로운 언어문화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외국인으로서 문화 수업을 받을 때 화폐 속 인물이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화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았고, 지하철역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구체적 요구를 고려할 때 ‘그들의 문화’가 이질감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다.

단언컨대, 한국어 학습자에게 잘 맞는 문화란 한국인이 성장 과정에서 교육받은 것과 다르다. 우선 대상자별로 요구되는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 유학생 대상 한국어라면 한국의 대학 문화가, 비즈니스 한국어라면 직장의 내 문화와 예절이 잘 맞을 것이다. 돌잔치, 집들이 등의 문화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긴급한 내용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문화에만 집중할 일이 아니다. 세대별 가치관과 직업관, 한국인의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이 한국 이해에 더 크게 영향 주는 사례도 많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좋은 관계를 이루는 데 기여할 생활 기반 문화도 귀하다. 첫인사를 할 때 알게 될 성과 이름의 순서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름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외국인이라 하지 않는가?



글을 마무리하면서 소개할 이야기가 두 가지 있다. 먼저 ‘우리 동네 채소 가게 아저씨는 나쁘고, 고깃집 아줌마는 친절해요.’라고 한 중국 유학생 이야기이다. 같은 한 근이라도 채소와 고기가 400그램, 600그램으로 다른 한국과 달리, 중국은 한 근이 모든 품목에서 500그램으로 통일되어 있다. 채소가게 아저씨가 외국인을 속인다고 오해한 유학생에게 무게 단위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한편, 미국에서 일 년을 살게 된 한 지인의 이야기도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병원 등록을 위한 서류를 만들러 갔는데 ‘몸무게가 몇 파운드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몸무게를 파운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물쭈물 한 한국인의 그 짧은 순간은 바로 외국인임을 체감하는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면 누구나 같은 처지가 된다. 다만, 누구도 넘어가 보기 전에는 그 상황을 모를 뿐이다. 한국어 교육에 선정될 문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 한국인으로 성장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소설이나 시도, 시험 준비로 달달 외웠던 사회 일반적 지식도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으로 당연히 선정될 근거는 없다. 한 개인으로서 익숙한 개별 경험은 더욱더 주의할 사실이다. 어떤 것이 교육과 학습 두 관점에 두루 유의미할 것인가? 오늘은 이 일을 숙제로 남긴다.

우리 말글에 대한 자긍심

한글학회 권재일 이사장



《심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재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198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대학교, 건국대학교, 그리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교육했습니다. 2009년에는 국립국어원 원장을 맡았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글 학회장을 맡아 왔습니다. 남북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장으로 활동한 바도 있고요. 현재는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직을 맡아 한글학회를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46년 가까이 우리말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한길을 오랫동안 걸어왔군요.



《**심표, 마침표**》 이사장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살펴보고자면 특히 한글학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글학회가 우리 국어 발전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권재일

한글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단체예요. 올해로 창립 114주년이 되었죠. 한글학회의 시작은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시경 선생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서울 봉원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한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 가며 성장해 왔습니다.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고쳤는데 이 시기에 우리 국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일을 하게 되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전 편찬 작업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뒤따르거든요. 먼저 표기법을 통일해야 했어요.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뿌리가 그 시절 조선어학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말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1936년에 표준말 사정안을 만들고 사전 편찬을 시작하여 1957년에 완간합니다. 그러는 동안 광복을 맞이하고 1949년에 학회 이름을 ‘한글학회’로 고쳐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심표, 마침표**》 한글학회의 현주소는 어떠한지요?

권재일

현재 한글학회는 민간학술단체로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국어를 연구하는 일이고 둘째는 연구한 것을 토대로 국민의 언어생활을 편하고 품격 있게 하는 일입니다. 먼저 연구 활동으로는 1년에 크게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열면서 학술지 ‘한글’을 일 년에 네 번 발간하고 있어요. 또한 월간지 ‘한글 새소식’을 발간해서 국민을 위한 계몽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죠.

《**심표, 마침표**》 ‘한글’과 ‘한글 새소식’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재일

‘한글’은 1927년에 처음 발간되었어요. 그때는 순수 학술지라기보다는 계몽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글 동인지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은 1932년에 창간이 되어서 올해 90주년을 맞이했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한글’은 다른 학술지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한 특징은 우리 말글에 대한 연구 내용을 실는 논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응용해서 실제 우리 국민의 언어생활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논문도 함께 실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어학은 컴퓨터 언어학을 활용한 인공지능 언어학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이 꽤 많이 실리고 있죠. 몇 년 전부터 강하게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육학에 대한 논문들도 널리 찾아서 실고 있고요. 이처럼 ‘한글’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술지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고 때로는 앞서가는 학술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글학회는 단순히 학술단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언어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따라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잡지를 창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글 새소식’입니다. ‘한글 새소식’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우리 말글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매달 7천 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종이판과 온라인판 발행을 병행하려고 해요. 우리 말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면서 우리 말글에 대하는 올바른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표, 마침표》

일곱 살배기 어린아이도 어렵지 않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이겠지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재일

백성들이 쓰고 읽는 데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문자가 쉬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일이에요. 문자 자체가 쉽고 편리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발상 아닌가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문자를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지요. 요즘 말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은 글자의 민주주의이며 인권이라고요.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위험이 거의 사라졌다는 게 한글이 가져다준 혜택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소통, 그리고 보통교육에서 문자의 장벽이 낮았기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한글 창제를 말하면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언급하면 봉건제도의 군주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업적들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펼쳐 나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관청의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늘려 준 일에서 세종대왕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여성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당시에는 7일의 휴가를 주었는데, 세종대왕은 기존의 7일 휴가에 100일을 더 주게 했어요. 나중에는 관노비가 아이를 낳을 산달에도 휴가를 줘서 모두 130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습니다. 노비의 남편에게도 30일 휴가를 주어서 산모를 돌보게 하고요. 그 마음 씬씀이가 지금의 복지 제도 수준을 넘어섭니다.

《선표, 마침표》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 아닙니까? 완벽한 한글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고요.

권재일

맞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한글 창제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죠. 창제 시기와 창제 원리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문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글뿐입니다. 해례본 내용을 살펴보면 한글이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본 글자를 만들고 거기서 확장시켜 나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자음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발음 기관을 반영하여 ‘ㄱ, ㄴ, ㄹ, ㄷ, ㄱ’ 5개의 기본 글자를 만들고 거기서 획을 더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ㅋ, ㆁ, ㆁ, ㆁ, ㆁ’ 등의 글자를 만들어냈죠.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누구나 한목소리로 ‘과학적이다, 독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글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휴대전화를 꼽을 수 있죠. 한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자음 기본 글자 5개와 모음 기본 글자 3개를 넣고 획을 더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입력하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간편하죠. 정보화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라고나 할까요.

《선표, 마침표》

훈민정음의 새 이름, ‘한글’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권재일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1894년까지는 훈민정음이 공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1894년에 고종임금이 칙령을 내립니다. 훈민정음을 나라의 글자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모든 국서를 국문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 이후 ‘한글’이라는 이름이 쓰였는데 ‘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토박이말로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비롯되어 ‘한글’이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주시경 선생이 회장을 맡아 1913년에 만든 ‘한글모’의 이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여기서 ‘모’는 ‘모임’의 앞 글자입니다. 그 뒤 1927년에 나온 조선어연구회 동인지 ‘한글’을 통해 ‘한글’이 훈민정음의 새 이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한글이 일반 국민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된 시기는 1928년입니다. 이보다 앞선 1926년에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하여 ‘가갸날’이 만들어졌는데, 2년 후에 ‘한글날’로 변경되었어요. 그 이후 1932년에 학술지 ‘한글’이 발간되고 1933년에는 한글맞춤법이 만들어지면서 한글이 우리 글자의 이름으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심표, 마침표》 한글날을 전후로 한글학회는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셨는지요?

권재일

해마다 진행되는 일들이 있지만 올해는 특별히 조선어학회 수난 80돌을 맞아서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온라인으로 생중계도 했고요. 혹시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고 있었는데, 일제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어요. 사전 편찬을 탄압하기 위하여 결국 회원 33명을 붙잡아 고문을 가했죠. 회원 중에서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은 결국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1942년 10월 1일에 일어났고요. 일제 치하에서 선열들이 우리 말글을 지키려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그야말로 총칼을 안 들었지 치열한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로 80년째 되었으니 그냥 쉽게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 30일에는 선열들의 유족들과 함께 광화문에 있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탑에서 꽃 바치기 행사를 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다시피 10월 7일에는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고요. 10월 말쯤에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남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온라인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27일에는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11명의 조선어학회 선열들께 참배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처럼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 80돌을 기념하여 우리 말글을 지키고자 한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요.



《**심표, 마침표**》 한글학회의 여러 사업 중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권재일 앞서 월간지 ‘한글 새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인데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꼭지가 있어요. 우리 말글 바른 생활에 대한 퀴즈가 그것이지요. 여기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쓰기 위한 교양 강좌가 있는데요. 1년에 두 차례씩, 그러니까 봄에 8주간, 그리고 가을에 8주간 무료로 진행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중단했죠. 내년 봄부터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은 언제나 꼭 필요하거든요.

《**심표, 마침표**》 화제를 좀 돌려서 국어운동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어운동이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운동이라고 여기고, 우리말과 한글은 우리 것이기에 소중하다는 믿음 위에서 펼쳐갈 것이라고 넘겨짚는데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국어운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권재일 국어운동이란 국민이 우리 말글을 쉽게, 정확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사용하도록 의식을 일깨우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말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 것이니까, 우리 말을 사랑해야 한다고 외친다면 국수주의에 불과하죠. 우리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글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일이 국어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의대학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 볼게요. 모교에 국어운동 학생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요즘 말하는 동아리였죠. 단체 회장을 하면서 한번은 제과 업체를 찾아가 국어운동 이야기를 했어요. 과자에 영어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왕이면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홍보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인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영어로 된 상품 이름을 좋아한다, 우리말로 이름 지으면 어쩐지 촌스럽다고 안 사 먹는다, 만약 소비자들이 우리말 상품 이름을 선호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말 이름을 쓴다.” 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뜨끔하더라고요. 다름 아닌 국민이 우리 말글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국어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주체를 손꼽는다면, 그건 한글학회도 국립국어원도 아니라 바로 정부 부처와 언론 기관이에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어려운 방역 용어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죠? 팬데믹, 드라이브 스루, 코호트 등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빈번했구요. ‘추가접종’이라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정부는 ‘부스터 샷’이라 했어요.

권재일 정부 부처가 공식 문서에서 외래어를 사용하니까 언론 기관도 그대로 따라서 사용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외국어에 취약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났죠. 우리 언어생활이 어려우면 삶의 질도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경우 생명과도 직결되고요. 우리 언어생활이 쉽고, 정확해야 하는 이유지요. 또한 국어운동을 말할 때 언어의 품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흔히 요즘 청소년은 말을 거칠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서로 쓰는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품격 있는 언어생활이란 미사여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생활을 장려하는 것이 국어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장을 맡으신 바 있고, 현재 한글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만큼 국어 정책과 관련해 아쉬움을 느끼시는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권재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글학회나 국립국어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론 조사를 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을 보면 확실히 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말이 국민 일상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누리집, 누리꾼’이라던지 ‘안전문’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이네요. 이러한 사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죠.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국어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표, 마침표**》 한글학회와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궁금합니다.

권재일 아시다시피 저는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한글학회는 학술 활동과 국민 계몽 활동을 펼치고 있고, 재단법인 한글학회는 한글학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따라서 제게 주어진 과제는 재정을 확보해서 한글학회를 도와주는 거죠. 또한 조선어학회 선열들이 남긴 문헌들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사업도 중요하고요. 국민의 언어생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과제겠지요. 앞으로 한글학회가 펼치는 여러 일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글/사진: 강은혜

우리말 풀기

문제 1

우리 집에 함께 놀러 [갈 거죠 / 갈 꺼죠]?

정답 찾기 🔍

문제 2

아침이 되니 날이 화창하게 [쬐다 / 개였다].

정답 찾기 🔍

문제 3

박 선수는 잠시 휴식기를 [가질 / 갖을]
예정이었다.

정답 찾기 🔍

문제 4

동생은 아버지의 노여움이
[사그라들기를 / 사그러들기를] 기다렸다.

정답 찾기 🔍

문제 5

이번 명절은 본가에서 [쉽니다 / 쉵니다].

정답 찾기 🔍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10. 4.~2022. 10. 17.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2년 1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조*현(6742)	주*희(5149)	우*용(8992)
고*숙(3148)	박*우(1117)	이*진(1374)
진*민(6171)	백*서(1443)	우*진(7201)
하*현(4429)		

우리말 풀기

문제 1

그는 밑창이 [단 / 뒹은] 구두를 신고 다녔다.

정답 찾기 Q

문제 2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 누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안녕히 [가십시오 / 가십시오].

정답 찾기 Q

문제 4

김 선생이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는지도 / 했을런지도] 모르겠다.

정답 찾기 Q

문제 5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마뜩잖게 / 마뜩찮게] 생각했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10. 18.~2022. 11. 7.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1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조*현(6742)	박*우(1117)	이*진(1374)
고*숙(3148)	백*서(1443)	우*진(7201)
진*민(6171)	우*용(8992)	하*현(4429)
주*희(5149)		